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에 대하여

글쓰기를 가르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글쓰기교실에서 상담을 시작한지 삼 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뿐옇게 번진다. 처음에는 가르친다는 것의 무게를 잘 알지 못했다. 내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거치며 터득해온 글쓰기 방법을 누군가와 공유하는 즐거움과 내가 아닌 다른 이의 글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누리기에 바빴다. 누군가에게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내 작문이 누군가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착각에 쉽게 빠지던 때였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글쓰기 자체를 넘어서 그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익히는 데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 학생들이 자주 틀리거나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 그런 문제를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조언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만들어냈다. 이런 조언은 대개 모호하고 두루뭉술해서 학생들 개개인의 문제를 곧바로 해결해주지는 않았지만, 나에게는 선생으로서 나름대로 교수법을 쌓아나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게 만드는 자산이었다. 이렇게 내 스스로의 경험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나의 글쓰기 지도가 틀을 갖춰 나가던 때, 혹은 그렇다고 여길 즈음, 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글을 쓰는 기초적인 방법이 아니라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을 가르침에 드는 의문이었다.

● ● ●
전혜리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원

돌이켜보면 몇 가지 계기가 있었다. 지난 가을, 리포트 마감 시즌이라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교실에 오가던 어느 날, 한 학생이 영화평을 들고 찾아왔다. 영화 <밀양>을 보고 쓴 글이었다. 여느 때처럼 첨삭용 파란색 펜을 들고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고 단숨에 끝까지 읽어버리고 말았다. 글은 전형적인 구조를 따르고 있지는 않았지만, 마치 영상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풍부한 생각들이 그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다시 읽으면서 몇몇 군데에 조언을 해줄만한 부분을 표시하고 메모



를 해놓았지만, 이 글이 나에게 준 울림에 비해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이라 머쓱하기만 했다. 상담 시간에는 본론에서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제안하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그만두고, 글을 정말 감명 깊게 읽었다고 고백하고는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얘기하는 걸로 마무리했다. 글쓰기교실에서 일하다 보면 간혹 이렇게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글을 접하게 된다. 비슷한 글을 읽고 비슷한 조언을 하는 무료한 일상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보상과도 같다. 그렇지만 이날은 느낌이 조금 달랐다. 오히려 더 무력해졌다. 내가 이 글을 더 좋은 글로 만들기 위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교수법으로는 누군가가 이런 홀륭한 글을 쓰도록 가르칠 수 없을 것이라는 데에 생각이 미쳤다.

대학에서의 글쓰기는 어떤 유형이든 학문적 글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학문적 글에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구조와 일반적으로 따르는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규칙들이 존재한다. 학부생들은 대부분 이런 글쓰기의 규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계에서 사용하는 몇몇 기술적인 방법들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게 글이 좋아진다. 학생들이 학문적 글을 능숙하게 읽고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술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글쓰기교실에서 설정하고 있던 목표였다. 이는 실제로 글쓰기 지도 과정에서 가장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는 지점이기도 하다. 학문적 글에 전형적인 구조와 규약이 있는 이유는 그것이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검증해나가는 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런 전형을 따르는 것이 좋은 글을 쓰기 위한 유일한 길은 아니다. 때로는 전형을 깨고 독자의 예측을 자꾸 벗어나는, 그럼에도 좋은 글이 있다. 학문적 글에서도 말이다. 전형적으로 좋은 글의 조건들을 분석하고 이를 기술적으로 가르치는 데 익숙했던 나는 전형에서 벗어나지만 여전히 좋은 글을 접했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던 것이다.

좋은 글을 쓰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가의 의문은 전공 관련 강의를 하며 학생들의 글을 직접 평가하는 경험을 가지면서 더 선명해졌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좋은 글이란 좋은 평가를 받는 글이기도 하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글쓰기교실에 상담을 청하는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목표를 좋은 평가, 높은 점수와 동일시한다. 나는 글쓰기 교실에서 학생들의 글을 읽고 조언할 때 학문적 글의 기본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가를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지도해왔다. 그런데 내가 직접 학생들의 과제



를 평가하고 채점하는 입장이 되니 구성이 깔끔하지만 사고의 깊이가 없는 글보다는 영성하고 못 갖춘 면이 많더라도 의미 있고 진솔한 질문을 하는 글에 어쩔 수 없이 더 주목하게 되었다. 나는 글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구조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몇몇 기술들을 가르쳐 왔지만, 이것이 ‘좋은 글’을 보장하지도, 좋은 평가를 보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내가 지금까지 글쓰기교실에서 좋은 글을 쓰는 방법이라고 가르쳤던 것이 실제 평가에서는 기대한 만큼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비로소 이 의문이 정말 심각한 문제임을 깨달았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원칙들을 인질로 잡고 앞으로 개척해야 할 새로운 방향을 묻고 있었다.

내가 가르침에 대해 점차 확신을 잃었던 이유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했던 것 같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합정이 있다. 무엇이 ‘좋은 글’ 인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조건이 있다는 믿음과, 맑은 완성이 가르침의 전제라는 생각이 그것이다. 어떤 글이 왜 좋은 글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설명을 곧바로 좋은 글의 조건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글에 대한 평가는 대개 텍스트 내적 조건으로만 결정되지 않고 그 글이 함축하는 맥락을 통해서야 온전히 해명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이유로 좋은 글을 쓰는 법을 알아야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도 모순적이다. 글쓰기에 있어서 맑이란 완결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내가 빠져 있었던 합정을 확인하고 나니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고 불확실함이 더 늘어났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안해진다. 가르침이 배움이라는 묵은 격언을 스스로 확인하기까지 참 오래 걸렸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좋은 글 쓰기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를 찾아내려하기보다 내 앞에 놓여있는 하나의 글에 집중하고 밀착하는 것일지 모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기분이지만 막막하지는 않다.

좋은 리포트를 쓰기 위하여

• • •
정 수 환
경제학부 학부생

“학생은 리포트를 못 썼습니다.”

새내기 때의 일이다. 당시에 나는 교양수업을 하나 듣고 있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없고, 대신 중간리포트와 기말리포트 두 번으로 평가를 하는 수업이었다. 계절학기에 드랍자가 많았고, 교수님께서는 가장 리포트를 못 쓴 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면 모두 A를 주겠다고 하였다. 아, 열심히만 쓰면 A는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정말 열심히 썼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20페이지가 넘는 글뭉치를 제출했으니, 새내기가 꽤나 노력했다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허나 실제로 나온 학점은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나온 학점 그 자체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어딘가 억울했다. 같이 이 수업을 듣고, 마감 전날 나보다 훨씬 적은 분량의 리포트를 획 써서 제출한 동기의 좋은 학점이 나를 더욱 억울하게 했다. 억울함에 못 이겨 교수님께 문의메일을 보냈다. 교수님, 왜 제 학점이 이렇습니까. 평가가 나온걸 보면 리포트를 잘 못 쓴 것 같은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교수님께 학점에 대한 메일을 보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수년이 지나 대학원생이 된 지금까지, 더 낮은 학점을 받고서도 한 번도 문의메일을 보내본 적이 없는걸 보면 새내기 때의 나는 어지간히도 억울했나보다. 교수님께서는 즉각 답장을 주셨다.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도 없을 만큼 아주 간결한 답장이었다. “학생은 리포트를 못 썼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때 제출한 글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주 잘 안다. 그 글들은 핵심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고,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밝히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교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너무 많은 것,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면 전부 우겨넣다가 균형을 잡는데 실패한 글이

었다. 주장도 불분명하고, 구조도 허술했다. 즉,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글이었다. 애석하게도, 많은 노력이 꼭 좋은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법이다. 만약 지금의 나에게 그 글에 대한 평을 부탁한다고 해도 저 말밖에 하지 못할 것 같다. “학생은 리포트를 못 썼습니다.”

허나 새내기 때의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분명 분량과 참고문헌을 보면 열심히 썼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는가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현실은 엄연한 현실이었다. 게다가 더 큰 문제가 있었다. 나는 앞으로도 학교를 한참 더 다녀야 했고, 제출해야 할 리포트는 수도 없이 많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복수전공으로 인문대 쪽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어디 리포트 없는 수업을 찾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내야 했고, 그 문제를 고쳐야만 했다.

그 뒤로 한동안, 좋은 글, 좋은 리포트를 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열심히 쓴다고 좋은 리포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충격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 이전에는 첫 시간에 교수님께서 ‘좋은 글이란 이러저러한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넘겼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그런 말도 최대한 귀담아 들으면서, 어떤 글을 써야할 지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마침 그 다음 학기에 들어야 할 수업 중에서 글에 엄하기로 유명하신 교수님의 수업이 있었다. 그냥 친구를 따라 넣었던 교양수업의 교수님도 알고 보니 글쓰기에 엄격하신 분이기도 했다. 게다가 본격적으로 인문대 복수전공을 시작하고 나니 매 전공수업마다 글쓰기는 피할 수 없는 산이었다. 그것이 서평이 되었든, 리포트가 되었든, 발제문이 되었든 간에 글쓰기 과제가 없는 전공수업은 사실상 없다시피 했다.

그렇지만 엄격하신 교수님들 아래서 계속 글을 제출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다. 글에 대한 고민이 많은 분이라면 오히려 그런 교수님의 수업을 듣는 것을 추천해주고 싶다. 아직도 기억나는 리포트가 몇 개 있다. 제출한 리포트는 대부분 보관하고 있는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들보다는 나쁜 평가를 받았던 리포트들이 훨씬 기억에 남는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학년 때 제출한 서평이었다. 교수님께서는 다섯 페이지짜리 서평에 빨간펜으로 빼곡하게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침착해주셨다. 교수님께서는 나의 서평이 글의 구조, 논리의 전개, 논리와 주장의 관계 등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아주꼼꼼하게 지적해주셨다. 남들의 글도 꽤 열심히 읽었다. 수업에서 다른 학우가 쓴 발제가 교수님께 칭찬을 받으면 그 글을 꼼꼼히 읽어보며 내 글과 비교해보기도 했다. 무엇이 다른가. 왜 이 글은 잘 쓴 글이고 내 글은 그렇지 않은가. 고민할 부분은 많았고, 공부도 많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좋은 글, 좋은 리포트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좋은 리포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찾은 답은 이것이었다. “정확한 리포트가 좋은 리포트이다.”

조금 설명을 덧붙여보자. 인문대 수업을 듣다 보면, 가끔 문장을 정말 아름답게 쓸 줄 아는 학우들이 있다. 그 학우들의 문장은 마치 시와도 같은 울림을 가지곤 한다. 그러나 이 글에서도 명확히 알 수 있듯, 그 문장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나는 아니었다.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후, 나는 대신 정확한 글을 쓰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글은 다음과 같은 글이다. 문장은 최대한 군더더기 없이 간결해야 하며, 글의 자료와 주장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하고, 글 전체의 구조는 하나의 명확한 중심 생각을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장 쓰고 싶었던, 그러나 아직 쓰지 못한 글은 문단 하나, 문장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글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확한 리포트를 쓸 수 있을까. 아직 그럴만한 글을 써보지 못한 사람이 그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을 논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 글을 읽는 후배들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몇 자 적어본다. 어렵게도 특별한 비법이나 깨달음 같은 것은 없지만, 글이란 것이 원래 그런 것 같다. 글쓰기의 왕도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이라고나 할까. 특히 정확한 글쓰기는 더욱 그러하다.

역시나 좋은 리포트 쓰기의 출발점은 핵심적인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 것 같다. 주어진 리포트의 핵심주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선행되지 못한다면 어떤 글도 성립할 수가 없다. 그 다음은 다독일 것이다.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읽는 것, 특히 교수님의 수업내용과 다른 각도에서 나온 자료들을 비교해서 읽는 것은 언제나 큰 도움이 되었다. 창의성을 논하는 시대이지만, 그 창의성이라는 것은 결국 이미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철저한 이해에서부터 나오는 법이다.

그 다음은 개요. 난 개요를 꽤 자세히 쓰는 편이다. 아무래도 글을 쓰기 시작하면 글이 쓰는 사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껏 움직일 때가 있다. 가끔은 글을 쓰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깨닫게 될 때도 있고, 처음의 구상을 수정해야 할 때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글을 쓰면서 떠오른 생각을 모두 포함시키려 했다간 필연적으로 논리적이지 못한 글이 되어버린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개요는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퇴고는 여러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리포트를 최소한 두

번 정도 엎는 편이다. 처음에 개요를 작성하고, 초고를 쓰다 보면 막히는 순간이 반드시 한 번은 온다.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것을 풀어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 글의 경우도 그렇다. 그 때 한 번 엎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내 글의 문제의식이 적절한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부터 검토하고 개요부터 다시 쓴다. 그렇게 다시 쓴 글이 완성되면 출력하여 마치 남의 글을 읽듯이 천천히 읽어본다. 읽다보면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순간이 온다. 논리적인 비약이 든, 말이 안 되는 주장이든, 하다못해 말도 안 되는 오타라도. 이를 수정해서 제출하면 완성본이 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도, 마음에 드는 글을 쓴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리포트의 제출은 언제나 그 중간에서의 타협점이었다. 이 글에서 적은 ‘좋은 리포트’의 요건은 결국 내가 지향하고 있는 이상점일 것이고, 그를 위한 방법들은 지금까지의 노력에 대한 중간정리인 셈이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대학원을 졸업하기 전까지, 내 마음에 드는 글을 한 편이라도 써볼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여러 후배님들 역시 그런 글을 써볼 수 있기를 기원하며 글을 마쳐보고자 한다.